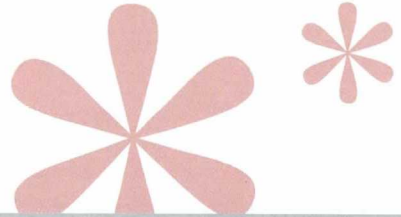




Mind Of Global, 이제는 세계시장이다! (주) 화인코리아 - 가공장편

취재 · 기사 : 김용진 전무, 김미희 주임



▶ (주) 화인코리아 본사 사옥 전경



▶ 오리가공시설을 갖추고 있는 제2공장. 부지면적 약 10,065평.

ISO 9001, KS 인증 획득, 업계최초 HACCP 적용 작업장, 세계최대 규모의 오리종합가공처리장 보유, 2006년 매출예상액 약 1,000억 원, 아시아 · 중동 · 오세아니아 각국 수출 등...

(주) 화인코리아는 이렇듯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지난 40년 간 하나하나 피땀 흘려 일궈낸 결과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1965년, 오리와 닭 사육을 시작으로 사육에서부터 유통까지 일체를 계열화하여 업계 선두를 달리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타 업체와 차별화된 화인코리아만의 비결은 무엇일까?

위생적 관리 시스템 구축

(주) 화인코리아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바로 제품의 위생관리에 있다.

깨끗하고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입란, 부화, 사육, 도축, 유통 등 각 단계별로 자체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필히 확인, 점검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 결과, 업계 최초로 도축장 HACCP 적용 지정을 받았고,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오리 · 닭 및 가공품에 대한 KS 인증을, 한국품질재단에서는 설계, 개발, 생산 및 판매에 대한 품질경영시스템(ISO)을

받아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차별화 전략

■ 전략 1. 국내최초 도축장 HACCP 적용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여 국민 건강 증대에 이바지하고 오리고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수출증대에 기여코자 화인코리아는 2002년 4월 국내에서는 최초로 세계 최대규모의 최신설비로 오리도축 및 가공시설을 준공하였으며, 안전한 제품생산을 보장하기 위해 그 해 10월 HACCP 적용업체로 지정받았다.

특히 제품의 신선도 및 안전의 핵심포인트인 내장 적출 전 공정을 완전 자동화하고 에어칠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미생물의 교차오염을 원천방지 하였으며, 경영자 이하 전 간부사원을 HACCP 구성원으로 하여 부문별 담당업무를 지정해 생체입고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를 HACCP 규정으로



▶ 전처리과정을 마친 후 벨트라인을 따라 예냉처리중



▶ 중앙제어실에서 모든 공정을 관리한다.

관리하고 있다.

또한 도축 전 과정을 세분하여 각 공정별 위해요소를 분석 및 중점관리하고, 작업장 및 개인 위생관리 상태를 기록하고 보완·개선하고 있다.

■ 전략 2. 위생적인 에어칠링 시스템 적용

화인코리아에서 적용하고 있는 에어칠링 시스템은 오리고기의 위생적이고 신선한 유통을 위해 도축 후 최단시간 내에 적정온도(4℃이하)로 냉각시켜 미생물 증식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시스템으로, 냉각공기를 각 도체에 분사하여 심부온도를 낮추어 줌으로써 도체 상호간 접촉에 의한 오염 및 세균의 감염을 완벽히 차단하여 신선함은 더욱 오래 유지시키고 수분함량을 낮춰 더욱 쫄깃한 질감을 갖게 한다.

탈모와 개봉 작업을 거친 통오리는 컨베이어 벨트라인을 따라 약 5Km(약 1시간 50분 소요)의 예냉실을 거친 후 가공실로 옮겨져 수출 및 내수용으로 분리작업이 이루어진다.



▶ 에어칠링 시스템을 거친 후 중량선별하고 있는 과정



▶ 기계실 내부 모습.



▶ 본사 사무실에 들어서면 (주)화인코리아의 행동강령이 먼저 눈에 띈다.



▶ 본사 사무실 내부전경.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현재 많은 업체들이 워터칠링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데 냉각수에 의해 육 표면에 수분이 흡수되어 물에 붙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반해 에어칠링 시스템은 직접 물과 닿지 않고 공기로 냉각시켜 약 2% 가량의 체중감량이 일어나 육질관리 면에서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해외시장으로의 진출

(주) 화인코리아의 중요한 사업목표 중 하나는 해외 수출 물량과 수출국을 꾸준히 늘림으로서 외화를 유입하여 국익에 이바지하고,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의 시장성 및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해외진출 사업의 일환으로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 및 오세아니아 지역에 이르기까지 여러 수출가능국을 방문하여 바이어와 직접 상담하는 공격적 마케팅 전략으로 많은 수출계약을 달성하였다.

또한 품질면에 있어서도 오리육의 경우 주로 수출하는 가슴, 다리 부위같은 부분육을 수출국에서 원하는 중량과 가격에 최대한 맞추었고, 우리나라 고유 보양음식인 삼계탕도 현지의 입맛에 맞게 개조하여 수출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다.

그 성과로 한국무역협회 실적기준으로 지난 1년간 (2005.7.1~2006.6.30) 수출실적이 5,381천불을 달성하였고, 이는 국내 가금 전체수출액인 10,316천불 중 52.16%에 달할 만큼 상당한 영향력을 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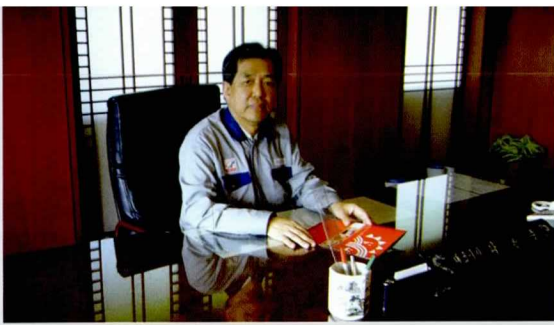
낸다고 할 수 있다.

화인코리아는 금년 1천만불의 수출을 예상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2,500만불의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림부에서 향후 우리나라 가금류 수출목표를 1억불로 계획하고 있는 만큼 그 중 절반이상인 5천~6천만불을 수출하여 국가 수출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2010년까지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시설투자에 힘을 쏟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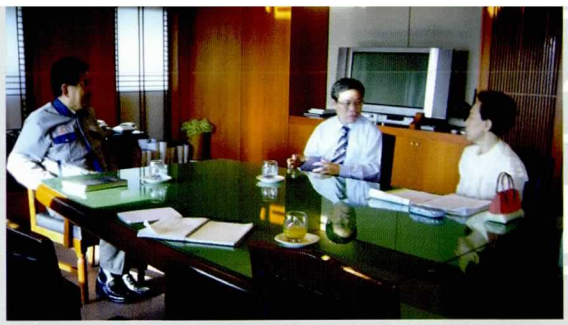
앞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와 방향

국내에서의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세계시장을 무대로 활동하여 21세기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축산계열화 전문기업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인 (주) 화인코리아는 금년에 1,000억, 2010년에 2,000억, 2015년에 5,000억의 매출액을 달성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다. 근 40년간 오리산업의 선봉에서 위기는 기회로 바꾸며 한발 한발 산을 오르듯 사업을 일궈낸 (주) 화인코리아의 화려한 행보가 기대된다.





▶ (주) 화인코리아 나원주 회장



▶ (왼쪽부터) (주) 화인코리아 나원주 회장, (사) 한국오리협회 김용진 전무, (주) 화인코리아 최 선 사장

∴ (주) 화인코리아 나원주 회장 인터뷰 ∴

■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또 어떤 방법으로 극복해 나갔는지?

젊은 사람들이 농촌을 등지고 도시로 떠나가는 열악한 환경에서 1965년 3월 금성축산으로 출발하여 40여 년 간을 닭과 오리 사업분야에만 집중하여 외길을 달려왔다. 다들 알다시피 닭, 오리는 생물사업으로 계절에 따른 주문량의 편차가 현격하게 심하고 매일매일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요예측에 따른 사육과 생산이 중요하다. 사업초기에는 이를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특히 비수기의 급격한 소비감소로 인한 판로확보가 급선무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의 계열화를 구축해 계열업체들로 하여금 전문화를 이루게 하였고, 해외수출의 활성화와 그에 따른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설비의 기계화, 과학화를 실현하여 최우량 상품을 생산하고자 세계적 최신의 오리종합공장을 건설하여 가동, 판매하여 매출액이 연 40% 이상 급성장하였다. 특히 해외수출의 길을 개척하여 이웃 일본의 삼계탕 시장 점유율이 82%에 달하는 등 대만, 싱가포르, 호주, 기타 다수국가에 농축산물을 가공하여 많은 물량을 수출하여 국위선양과 낙후된 농어촌의 소득향상과 고용창출 등에 기여한 점이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 평소 굽히지 않는 본인만의 경영철칙이나 신념이 있다면?

첫 번째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정도경영을 경영철칙으로 삼고 있다. 우리 직원들에게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할 때 고객의 감동과 신뢰를 가져올 수 있고 회사 발전의 근간이 된다고 늘 강조한다. 우리 회사가 여러 번의 위기상황에서도 재기 할 수 있었던 것도 임직원

들 모두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확신한다. 또한 정직과 투명한 경영을 통해서 직원들의 경영참여를 유도하고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게 하며 회사 이익이 실현되었을 때 이를 공개하고 그 이익의 일부를 직원들에게 환원시켜 준다. 즉 정직과 투명한 경영을 통한 상생의 원리를 중요시 여긴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기획하고, 설계하고, 구체화 시키는 것이다.

미래를 준비해 둔 사람에게만 기회가 온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이를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기회가 온다 해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놓치고 말기 때문이다. 현재에 충실하면서 자신의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꿈으로 언제나 일하는 것이 즐겁고 작은 일도 행복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확신한다.

■ (주) 화인코리아만의 자랑거리나 특징은?

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다. 승진이나 연봉도 연공서열에 의한 방식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회사가 이익을 실현할 때 그 이익의 일부를 직원들에게 돌려주는 제도의 정착으로 회사의 발전이 개인의 발전과 직결된다는 공동체 의식이 강하다.

■ 오리업계나 협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나 바람이 있다면?

오리산업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주시고 특히 수출을 통해 국위를 선양하는 기업에는 안정적인 PS공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었으면 한다.